

2번의 선물

· 글_수혜자 차은혜 님

기증자님께.

이어지는 장마에 오늘은 잠시 햇빛이 보입니다. 그동안 건강은 어떠신지요? 잠시라도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보답이라 생각되어 제 딸은 최선을 다해서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예쁘게 교복도 입고 그렇게 학생으로서 정말 행복하게 지냈습니다. 그러나 욕심이 과했을까요? 면역력이 부족해서 수두가 왔고 병원 치료 중 재발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알고 밤을 지새우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. 차마 딸아이에게 재발이라는 말을 못하고 용기를 내어 항암치료에 대해 설명하니 예쁘고 귀여운 딸아이 눈에서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을 보았습니다. 엄마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... 울며 얘기하는 딸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, 찢어지는 어미의 심정을 어찌 글로 표현하겠습니까?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항암치료를 끝내고 이제 어느 정도 수치도 회복되고 하늘아래 선생님 이 주신 사랑의 기적을 체험합니다.

한번 주셨던 조혈모세포도 감사하고 또 감사했는데 두 번째 조혈모세포를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 침대를 잡고 영영 울었습니다. 어쩌면 내 딸아이만 치료한다고 뻔뻔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거절하지 않으시고 한 생명을 또 살려주시니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딸아이 보다는 지금쯤 선생님께서는 어떤 심정이실까? 어떤 분이실까? 정말 물어보지 못한 서러움이 밀려와 감사의 눈물로 이 글을 드립니다. 항상 기도하는 것은 예전보다 더 건강하시고 많은 복을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또 평안하시길 두 손 모아 기도 드립니다. 사랑으로 떼어주신 조혈모세포를 예쁘게 물 주고 사랑으로 키워서 좋은 열매로 만들어 기증해주신 선생님께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딸로 키우겠습니다. 장마가 끝나면 무더위가 올 텐데 건강 주의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가 만사형통 하시길 기도드립니다. 너무나도 부족한 어미가 두서없이 몇 자 적었어요. 이해바랍니다.

기증자님 감사합니다.

사랑합니다! 응답

·글_수혜자 유정현 님

안녕하세요!

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분이지만
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이
기쁘고 감사하며 가슴이 벅칩니다.

저는 한 남자의 아내로 또 아이들의 엄마로서

가정의 평화와 사랑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.

그러던 저에게 갑자기 견딜 수 없는 슬픔이 닥쳤습니다. 앞이 캄캄하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. 아픈 자식을 바라만 보며 산다는 것이 싫을 정도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. 점점 눈물도 메마르고 간절한 기도만이 하루하루 버틸 힘이었습니다.

그러던 중 저는 기적의 선물을 받았습니니다. 그것은 바로 당신의 '사랑'이었습니다. 저는 당신의 넓고도 깊은 사랑을 뻗속 깊이 실감합니다. 저는 제 아이를 낳았지만 당신은 아이에게 제 2의 생명과 희망을 주셨습니다. 아직 어린 아들이 새로운 꿈을 이룰 수 있게 기적을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. 저는 제 가족과 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 밖에 몰랐습니다. 그러나 세상에는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있구나! 이런 시련을 겪고 나서 알았습니다. 글로써 표현할 수 없는 한없는 사랑!

당신의 아름다운 뜻과 실천으로 제 아이뿐만 아니라 저는 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. 모진 시련을 뚫고 피어나는 민들레처럼 아이들의 꿈이 흩날려서 멀리멀리 퍼져 도록 당신의 뜻을 간직하겠습니다. 당신은 세상 누구보다도 위대합니다. 곁에 계신다면 그 따뜻한 손 꼭 잡아보고 싶습니다.

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